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약은 자비심

강 사 : 청전 스님
일 시 : 2010년 2월 2일
주 제 : 현대사회를 향한 달라이라마의 메시지
장 소 :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만해 NGO센터’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자람 없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을 모른다. 어딜 가나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지만 마음은 허하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화를 내고 있다. 자연히 얼굴 표정도 굳어 간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종교를 갖지만 종교인들이라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까? 청전 스님은 “오히려 성직자들이 더 혼탁해졌다”고 일침을 놓는다. 또 스님은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명’이라는 검은 천을 제치고 불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꾸준한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의 2월 리더스 포럼 강사로 나선 청전 스님은 진정한 불교 수행은 무엇이고,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법문했다. 그 향기 나는 길을 따라가 보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을 바란다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四聖諦)에 있습니다. 사성제의 바른 견해 없이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45년간 8만4000법문을 설하시면서 왜 사성제를 제일 앞에 두셨는지를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사성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방스님들이나 큰스님들께 “사성제를 아느냐”고 물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기법’과 ‘존재의 규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하는 질문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나는 왜 있는가?’ ‘너는 왜 있는가?’ ‘우주는 왜 있는가?’의 질문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뭇 생명들은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고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법’, 모두 행복을 바라고 불행을 원치 않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함 내밀기를 좋아합니다. 통성명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그 직함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불교를 알고 불교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성 잃지 않고 법에 준한 생각해야
고통 벗어날 수 있는 약은 착한 마음 · 사랑 실천의 준비

청전 스님은 한국불교가 실제 수행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부처의 깨달은 후의 모습만 보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전생부터 해온 수많은 고행과 자비 · 선행 · 희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영혼에는 때가 묻어있습니다. 과학의 편리함 속에 불편함 없이 살고 있어 내재된 힘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풍요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나의 스승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가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제 수행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중국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려 들지 말고, 다르마(法)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상식장은 눈물바람이 됐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법에 준한 생각과 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티베트 내에 캄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캄족은 네팔 히말라야 부근에 기지를 세우고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 캄족의 공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네팔 정부는 캄족을 빌미삼아 달라이 라마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캄족을 찾아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 속에서 캄족 대장은 부하들에게 “총을 버리고 집에 갈 사람은 가라. 나는 여기서 자결 하겠다”고 말하며 게릴라전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생에서는 흔들림 없이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실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했다가도 그 마음이 정점에 이르고 난 후에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신지 23년이 됐는데 아직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저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1993년 카일라스(티베트 산)에 순례를 갔습니다. 티베트는 지형이 높고 산소도 희박해 한계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번 뗀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카일라스에서 제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의식이 흘러 어느새 도솔천에 갔습니다. 그곳에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달라이 라마 스님, 그 밖에 무한한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식의 진행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는 아미타 부처님과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제게 와서 티베트 종교의식에 쓰는 작은 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며 하찮게 여기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카일라스에서 그런 경험을 한 후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를 향하면서 “이 신기한 경험을 달라이 라마에게 여쭤야 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마자 달라이 라마가 먼저 “너 이런 경험 하고 그거 물어보러 왔지?”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는 제게 “신심이 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해야 할 수행법을 일러주셨죠.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의식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내적인 수행체험까지 달라이 라마가 다 알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착하고 맑아야

종교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수행은 착함과 배려입니다. 나를 맑혀 타인을 배려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맑아야 합니다. 뿌리가 약인 나무는 줄기 · 잎 · 꽃이 모두 약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독인 나무는 전체가 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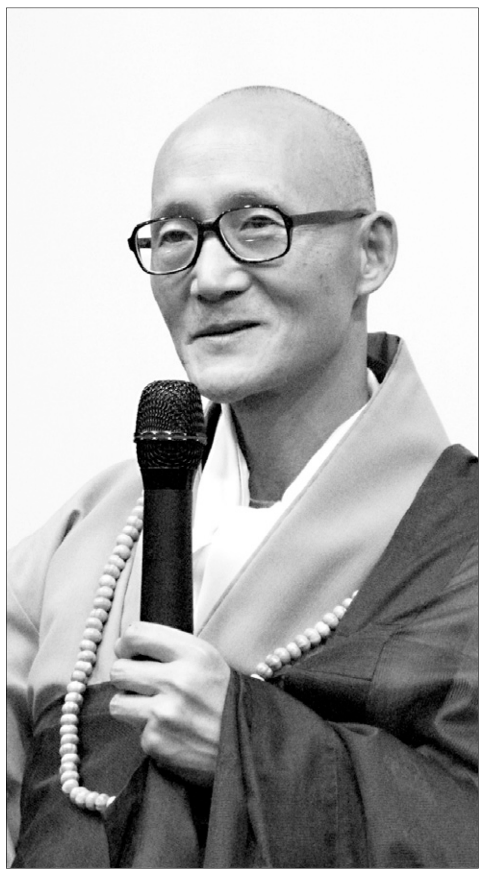
미국에 있는 한 기관은 어떻게 하면 위 · 심장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결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약은 착한 마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웰빙(well being) 식품을 뛰어넘은 진정한 웰빙은 자비심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매일 수행 정진하며 자신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개개인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첫번째는 자기의식의 규명, 즉 깨달음입니다. 인간존재자로서 내 안에 숨은 영적 에너지를 깨워야합니다. 인류에게 있어 산업개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혼탁해 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화를 냅니까? 바로 남이 자신을 험담할 때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귀에 들려오면 격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를 헐뜯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쿤달리니(영적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개발이 한국에 오니 상업화돼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새로움 · 단기간’이런 말로 홍보하는 것들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한국에 편재해있는 아바타프로그램 등은 성스럽고 심오한 것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놓아 우려스럽습니다. 숨은 인간의 혼, 영혼의 힘의 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신부가 되려고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던 청전 스님은 송광사를 찾았다가 ‘전생(前生)’이 화두가 되어 출가했다.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착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야 말로 몸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깨어나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몸을 비틀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맑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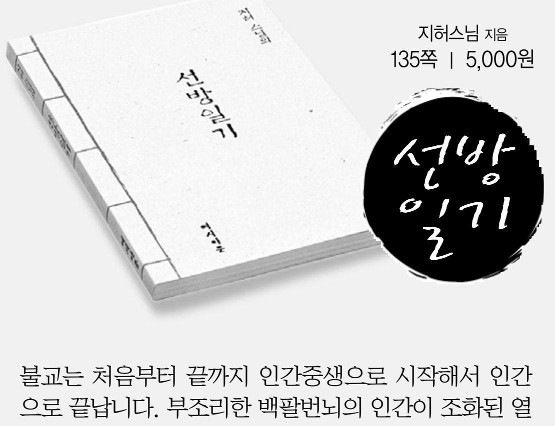
저는 1981년 대구 동화사에서 한 노스님이 법당에서 108배 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108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절하시는 분들 실제로 행복합니다. 정신적으로 맑고 잔잔한 것, 그것이 평화 아닐까요?

불제자로서 무언가를 쉽게 바라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탐 · 진 · 치가 뿌리입니다. 또 탐 · 진 · 치는 무명에 쌓여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무명을 뿌리 뽑아 자기가 행복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불제자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